기혼여성의 원가족 경험의 유형화와 가족건강성과의 관계[†]

- 가족분화와 가족규칙을 중심으로 -

A Study on Classification of Married Women based on their Experiences of Family of origin and Family Strength

- Focused on Family Differentiation and the Family Rules -

이지민*

영남대학교 가족주거학과

Lee, Ji-Min*

Dept. of Family and Housing Studies, Yeungnam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clusters of married woman based on family differentiation and family rules originating from their family of origin, and to examine family strength according to clusters. The research instrument comprised of a questionnaire completed by 269 married women that investigated family differentiation and family rules based on family origins, and the comparative strength of their nuclear family. Analysis of subgroups was based on four representative categories differentiating family rule patterns. Cluster analysis demonstrated that the higher family differentiation level and lower-mid family rules level were related to greater family strength. As a subgroup, lowest levels of family strength were associated with lower family differentiation and lower family rules in all clusters. Findings supported the efficacy of a typological approach for investigation of experiences of married women based on family origin.

Keywords: Married women, family of origin, family differentiation, family rules, family strength, cluster analysis

I. 서론

가족은 개인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사회적·심리적 환경으로 개인의 건강한 성장 발달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인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특히 자신이 성장한 원가족에서 부모와의 관계와 경험은 성인이 되어 자신이 형성한 가정에서의 배우자와의 관계와 자녀와의 상호작용, 그리고 가족의 건강성 등에 지속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족건강성은 가족의 건강한 정도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서구에서는 1960년대부터 Otto(1963)나 Pratt(1976) 등의 여러 학자들에 의해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20세기 초반에 가족에 관한 연구들은 가족의 문제와 병리현상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으나 이러한 연구방향이 가족의 문제를 감소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에 1960년대부터는 당시 서구사회에 만연한 가족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족의 긍정적인 측면과 강점을 강화하고 가족관계를 향상시키

[†] 이 연구는 2010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에 의한 것임.

* Corresponding Author: Lee, Ji-Min

Tel: 053-810-2866

Email: ljimin@ynu.ac.kr

는 방향으로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Curran, 1983; Stinnet & Defrain, 1989; Yoo, 2004).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0년대부터 가족건강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가족건강성(Lee, 2009; Park, 2010; Yoo, 2004)과 건강가정사업관련 연구(Kim & Jung, 2011; Park, 2008; Su & Kim, 2007; Song, 2010)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가족건강성에 대한 정의와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 가족건강성은 가족의 구조나 형태보다는 가족의 기능과 심리사회적 측면을 강조하여, 가족원들이 상호 친밀하고 애정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하며, 가족 고유의 가치관이나 규범을 공유하고, 위기상황에 공동의 노력이나 책임으로 융통성 있게 대처해 나가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안정된 가족을 의미한다 (Eo, 1997; Olson & Defrain, 2003; Yang *et al.*, 2001). 가족건강성의 요소 또한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나(Lin, 1994; Otto, 1963; Stinnett, 1983), Yoo와 Eo(1995)는 한국형 건강가족 척도를 개발하면서 그 요소를 가족원간의 유대, 의사소통, 문제해결 수행능력, 그리고 가치공유로 구분하였다.

가족건강성은 개인의 전 생애를 통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Hwang *et al.*, 2009; Kerr & Bowen, 1988). 가족건강성에 관한 연구들은 아동, 청소년, 미혼남녀, 기혼남녀,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학교생활적응(Kim & Choi, 2009; Kim & Choi, 2010; Workman & Gage, 1997), 심리적 적응(Bae & Kim, 2007; Lee, 2010; Keitenr & Miller, 1990), 결혼 만족도(Gottman & Notarius, 2008; Kim, 2001), 자아존중감이나 삶의 만족도(Seo & Kim, 2009; O, 1999)등에 대해 이루어져 왔다. 이들 연구에 의하면, 자신의 가정을 건강하다고 지각하는 개인은 여러 측면에서 심리 사회적으로 적응도가 높고, 자아존중감이나 생활만족도, 대인관계가 원만한 것으로 나타났다(Cho & Chung, 2009; Seo & Kim, 2009). 반면, 자신의 가족을 건강하지 않다고 지각한 개인들은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 및 다양한 행동문제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hung, 2008; Harrington *et al.*, 1990; Kim, 2001). 또한 최근에는 맞벌이나 주말부부(Choi, 2005, 2006), 농촌부부(Kang & Choi, 2010; Yang, 2004), 다문화가족(Kim, 2011; Jun *et al.*, 2009) 등을 대상으로 가

족건강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가족건강성이 가족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이나 적응 등 여러 측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살펴봤으나, 현재의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가족구성원들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이 개개인의 삶에 지속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가족의 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특히 기혼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태어나서 성장한 원가족(family of origin)에서의 경험이 결혼 후의 생활이나 가족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현재 가족의 건강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원가족의 경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Cho & Chung, 2008; Ha & Chung 2008; Jin, 2008).

기혼자의 가족건강성이나 가족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족 변인으로는 가족분화와 가족규칙이 부각되고 있다(Chung & Lee, 2003; Ford, 1983; Nam & Han, 2002). 가족분화(family differentiation)는 Anderson과 Sabatelli(1992)가 가족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기 위해 제안한 개념으로, 가족체계 내에서 가족들 간의 연결성(connectedness)과 분리성(separateness)의 균형을 의미한다.

가족분화는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을 의미하기도 하는 개념으로 가족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 내의 연결성과 분리성은 적절한 균형을 이루며, 이러한 가족에서 성장한 개인은 개별성과 자율성이 발달된 동시에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다. 반면, 가족분화 수준이 낮은 가족은 가족 내의 연결성과 분리성에 있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며 연결성 없이 분리성만 보이거나 분리성 없이 연결성만 보이는 극단적인 상호작용 유형을 지니게 된다(Allison & Sabatelli, 1988; Nam, 2000). 가족분화 수준이 낮은 가족에서 성장한 개인은 가족 내에서 정서적 단절 혹은 정서적 융합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이후 개인의 심리적 건강과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Skowron & Friedlander, 1998).

특히 원가족의 부모-자녀 관계에서 경험한 가족분화는 기혼 자녀의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에서 그대로 반복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원가족의 상호작용 경험이 세대를 걸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Bowen, 1978; Cho & Chung, 2008).

Bowen(1978)은 자기분화가 낮은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자기분화 수준의 배우자와 결혼하게 되며, 가족투사 과정(family projection process)을 통해 원가족의 병리적인 생활방식이 현재 핵가족관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반면, Burr *et al*(1993)은 가족 구성원들이 관계를 맺는 방식이나 상호간의 친밀감과 거리감에 대처하는 양식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수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원가족의 병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건강한 상호작용 방식도 핵가족의 부부 및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원가족의 가족분화가 핵가족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Forrest, 1991; Stahmann & Hiebert, 1980; Yoo & Park, 1989)들에 의하면, 원가족의 부모-자녀 관계에서 친밀감과 자율성의 균형을 경험한 기혼자들은 정서적 단절이나 융합을 경험한 기혼자들보다 자신의 현재 가족을 더 건강하다고 지각하였으며, 더 안정되고 만족스런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분화와 함께 현재 가족의 건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인은 원가족에서 경험한 가족규칙이다(Chung & Lee, 2003; Ford, 1983; Kim, 2007; Satir, 1988). 가족규칙은 가족체계 내에서 가족들의 행동과 의식을 규정하고 규제하는 행동규범으로 주로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회화 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언어적 지시나 비언어적 메시지를 통해 내재화된다. 이러한 내재화된 가족규칙은 가족구성원들의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또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도 외현화되는 경향이 있다(Lee, 2002; Korea Satir Institute, 2000).

특히 원가족에서 경험한 가족규칙은 결혼생활의 만족이나 안정성 및 부부갈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ho & Choi, 2006; Larson & Wilson, 1998; Lee, 2002). Park(2006)의 연구에 의하면, 성별에 따라 원가족의 가족규칙 하위요인을 지각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부간의 의사소통과 친밀감에 대해 부부 각자 원가족의 생활규칙, 성과 성역할에 관한 규칙, 위계규칙, 감정 규칙 등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가족의 가족 상호작용과 경험이 현재 핵가족에 다세대적으로 전수되는 것과 유사하게, 원가족에서 부모에게 배운 가족규칙은 새로 형성한 핵가족의 부부관계에도 적용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양가의 가족규칙이 상치되

는 경우에 혼란과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Larson과 Wilson(1998)은 자신이 성장한 가족의 가족규칙이 젊은 성인들의 결혼 전 관계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역기능적인 가족규칙은 데이트 만족이나 책임감과 부적인 상관이 있는 반면, 데이트 불안과는 정적인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가족규칙의 영향은 결혼 후의 부부관계와 가족건강성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부모-자녀 관계에서 습득한 비합리적이고 역기능적인 가족규칙을 핵가족에 적용함으로써 부모-자녀 간의 갈등과 자녀의 다양한 심리적·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가족분화나 가족규칙과 같은 원가족의 경험은 현재 핵가족의 가족건강성이나 결혼만족도, 부부 친밀감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원가족의 경험이 현재 핵가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선형적인 관계만 살펴보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원가족의 가족분화가 높을수록, 그리고 가족규칙을 강하게 지각할수록 현재 핵가족을 건강하고 만족스럽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가족분화가 높으나 가족규칙을 약하게 지각하는 경우나 가족분화는 높지만 가족규칙을 강하게 지각하는 집단 등 개별적인 집단에 대한 파악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은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대상(objects)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분류하기 위해 변수별 관찰치 간의 거리(distance)를 이용하는 방법이다(Chung & Elias, 1996; Zimmerman & Maton, 1992). 즉, 집단 내에는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도록 하고 집단 간에는 상이한 특성을 나타내도록 집단을 구분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고자 하는 유형학적 접근이다. 기혼여성이 경험한 원가족의 가족분화와 가족규칙을 지각하는 정도에 따라 유형을 나누고 이에 따라 현재 핵가족의 가족건강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가족분화와 가족규칙이 핵가족의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이러한 원가족 경험을 근거로 한 숨어있는 기혼여성의 유형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원가족의 가족분화와 가족규칙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함으로써 하위 집단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원가족의 경험이 현재 핵가족의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세한 탐색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가족의 경험이 현재 핵가족의 건강성에 미치는 것에 대해 기혼여성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한 가정 내에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기혼여성의 정서적 건강성과 안녕은 다른 가족 구성원의 심리적 기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많은 기혼여성들이 맞벌이를 선택하고 그러한 가운데 자녀양육이나 가사에 있어 친정의 도움을 많이 받는 상황 하에서 기혼여성의 원가족의 경험과 영향력이 현재 핵가족의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기혼 여성의 결혼 전과 이후에 경험하는 원가족의 영향력을 파악하고 자신의 가족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현재 핵가족에 미치는 원가족의 영향은 결혼 초기의 부부들이 자신들의 새로운 가정을 확립해 가는 과정에 지대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원가족의 관계 경험이 세대를 걸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Bowen, 1978; Cho & Chung, 2008)들을 고려해 볼 때, 결혼 초기의 부부만을 연구대상으로 한정짓지 않는 것도 핵가족에 미치는 원가족의 영향을 파악하는데 의미가 있으리라 사료된다. 위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원가족의 가족분화와 가족규칙에 따른 기혼여성의 유형화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원가족의 가족분화와 가족규칙에 따른 유형에 따라 기혼여성의 가족건강성에는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D시에 거주하는 기혼여성 2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부실 기재된 11부를 제외하고 총 269부만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기혼여성의 나이는 평균 34.38세이었으며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본인과 배우자 연령은 30대가 전체의 70%~78%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자녀수는 2인 경우가 61.8%로 가장 많았다. 결혼 연수는 6~10

년 사이가 전체의 56.2%로 가장 많았으며, 70%이상이 연애 결혼하였으며 핵가족 형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 본인의 직업은 전업주부가 대부분이었으며, 배우자는 사무직이 37.8%, 무직 및 기타가 25.8%, 전문직 및 관리직과 판매서비스 및 생산직이 각각 1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순위는 장녀와 삼녀 이하가 각각 37%정도를 차지하였으며, 월 평균 수입은 2백만~3백만이 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척도

1) 가족분화

기혼여성 원가족의 가족분화는 Anderson과 Sabatelli(1992)가 개발한 가족분화척도(The Differentiation In The Family System Scale, DIFS)를 Nam(2000)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원척도에서는 가족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순환식 질문 방식으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혼여성의 원가족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알아보기고자 하였으므로 아버지와의 분화와 어머니와의 분화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아버지와의 분화와 어머니의 분화는 각각 1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원가족의 가족분화에 관한 문항으로는 ‘아버지(어머니)는 나의 견해가 부모님의 견해와 다르더라도 존중해 주셨다’, ‘아버지(어머니)는 나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다’ 등이다. 각 문항의 응답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1)’에서 ‘매우 그랬다(5)’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분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각 요인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아버지와의 분화가 .861이었으며, 어머니와의 분화는 .828로 나타났다.

2) 가족규칙

기혼여성이 원가족에서 경험한 가족규칙은 Lee (2002)이 사용한 23문항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선행연구들과 같은 4요인이 나왔으나, 신뢰도가 낮은 3문항을 제외한 20문항만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은 생활규칙에 관한 4문항, 성과 성역할에 관한 규칙 6문항, 위계규칙에 관한 5문항, 감정규칙에 관한 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에 관한 예로는 ‘항상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variables	categories	N(%)	variables	categories	N(%)
Subject's age	20~29 years	27(10.1)	Spouse's age	20~29 years	12(4.5)
	30~39 years	210(78.7)		30~39 years	188(70.4)
	over age 40	25(9.4)		over age 40	63(23.6)
Number of children	1	67(25.1)	Years of marriage	1year~5year	58(21.7)
	2	165(61.8)		6year~10year	150(56.2)
	over 3	33(12.4)		over 11year	55(20.6)
Type of marriage	love marriage	188(70.4)	Type of family	nuclear	240(89.9)
	arrange or compromised marriage	78(29.2)		extended	26(9.7)
Subject's job	professional or administrative position	53(19.9)	Spouse's job	professional or administrative position	46(17.2)
	office job	33(12.4)		office job	101(37.8)
	sales and service, or, production / manufacturing position	23(8.6)		sales and service, or, production / manufacturing position	46(17.2)
	house wife or etc.	151(56.6)		no job or etc.	69(25.8)
Birth order	first	95(35.6)	Family income (won)	under 2 million	48(18.0)
	second	60(22.5)		2~3 million	88(33.0)
	third or more	99(37.1)		3~4 million	63(23.6)
	only child	11(4.1)		over 4 million	65(24.3)

* 무응답의 경우, 결측치 처리를 하였으므로 사례수에 차이가 있음

성실해야 한다’, ‘자녀 양육은 엄마가 책임져야 한다’, ‘집 안에는 위계질서가 있어야 한다’, ‘감정을 표현하지 말아야 한다’ 등이 있다. 각 요인별로 점수가 높을수록 원가족에서 지켜온 가족규칙을 강하게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 하위 요인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생활규칙이 .68, 성과 성역할에 관한 규칙이 .81, 위계규칙이 .78, 그리고 감정규칙이 .75이었다.

3) 가족건강성

기혼여성이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Yoo와 Eo(1995)가 제작한 ‘가족의 건강성 척도’

를 사용하였다. 총 34문항을 요인분석하여 4요인(가족원간의 유대 10문항, 의사소통 8문항, 가족문제해결 수행능력 5문항, 가족원간의 가치체계공유 8문항)이 추출되었으며, 신뢰도를 저해하는 3문항을 제외한 31문항이 사용되었다. 가족건강성에 관한 문항으로는 ‘우리 가족은 서로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가족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경우, 가족원끼리 협력하면서 해결한다고 생각한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각 요인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각 요인의 Cronbach's α 는 가족원간의 유대가 .92, 가족원간

의 의사소통이 .90, 가족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86,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가 .89이었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변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기혼여성 원가족의 가족분화(아버지와 어머니와의 분화, 어머니와의 분화)와 원가족 규칙(생활규칙, 성과 성역할에 관한 규칙, 위계규칙, 감정규칙)에 따른 내재된 군집을 파악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 방법은 Hair와 Black(2000)의 제안에 따라 위계적 군집분석인 Wards의 방법과 비위계적 군집분석인 K-평균 분석을 연달아 실시하였다. 이러한 2단계 군집분석에서는 첫 단계에서 Wards 방법으로 군집의 수를 정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상기 군집별 군집변인들의 평균점수를 초기 중심점(seed points)으로 순차적 군집분석법을 통해 최종 군집을 확정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군집분석을 통해 나누어진 기혼여성들 집단의 가족건

강성(가족원간의 유대, 의사소통, 가족문제해결 수행능력, 가족원간의 가치체계공유)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ANOVA를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기초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및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Table 2>에 제시되었듯이, 가족건강성의 하위요인인 가족유대, 의사소통, 문제해결, 가치공유와 아버지 및 어머니와의 분화는 정적 상관($r=.316 \sim r=.364$, $p<.0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가족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분화가 높을수록 현재 핵가족에서의 가족건강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가족건강성과 가족규칙과의 관계에서는 가족건강성의 하위요인과 생활규칙과 위계규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 및 성역할에 관한 규칙과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

<Table 2> Correlations,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	-									
2	.71***	-								
3	.17**	.20**	-							
4	-.44***	-.33***	.04	-						
5	-.05	.14*	.40***	.43***	-					
6	-.22***	-.17**	.27***	.51***	.46***	-				
7	.33***	.32***	.30***	-.17**	.19**	-.03	-			
8	.35***	.34***	.25***	-.20**	.16**	-.04	.89***	-		
9	.33***	.36***	.30***	-.17**	.21**	-.05	.86***	.82***	-	
10	.35***	.32***	.27***	-.19**	.18**	-.03	.85***	.83***	.81***	-
M	3.38	3.53	3.96	2.91	3.45	2.85	3.82	3.68	3.81	3.56
SD	.66	.57	.55	.79	.69	.69	.58	.61	.61	.60

* $p<.05$ ** $p<.01$

1: Differentiation from father 2: Differentiation from mother 3: Rules on daily life
4: Rules on sex role 5: Rules on hierarchy 6: Rules on emotion 7: Family tie
8: Communication 9: Problem solve 10: Value share

났다. 감정규칙과의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한국 문화는 감정에 대한 표출을 자제하도록 교육받으면서 성장하므로 원가족에서 경험한 감정에 대한 규칙이 핵가족의 가족건강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리라 생각되어진다.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분화와 가족규칙과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분화는 생활규칙과는 정적 상관이 있었으나 성 및 성역할에 관한 규칙과 감정규칙과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계규칙은 어머니와의 분화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원가족의 가족분화와 가족규칙에 따른 기혼여성의 유형화

본 연구에서 기혼여성이 원가족에서 경험한 부모와의 분화와 가족규칙 하위변인을 군집변인으로 하여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 Wards 방법을 사용하여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고 덴드로그램(dendrogram)과 군집화 일정표(agglomeration schedule)를 참조한 결과, 4개의 군집이 제안되었다. 1단계에서 생성된 군집변인들의 각 군집별 평균점수를 초기 중심점(seed point)으로 투입하여 2단계 K-평균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혼여성들은 4개의 유형에 배정되었다.

<Table 3>과 [Figure 1]에 제시되어 있듯이, 각 유형의 양상에 따라 유형의 이름을 정한 결과 첫 번째 유형은 아버지, 어머니와의 분화는 낮고 성역할에 관련된 가족규칙은 높은 반면, 다른 가족규칙은 낮은 군집으로

<Table 3> The final see point of clusters

Variables	Ambiguous	Flexible	Liberal	Strict
Differentiation from father	-0.62	0.82	0.64	-0.79
Differentiation from mother	-0.64	0.75	0.55	-0.61
Rules on daily life	-0.76	0.53	-0.24	0.51
Rules on sex role	0.16	-0.1	-1.21	0.92
Rules on hierarchy	-0.6	0.46	-0.83	0.85
Rules on emotion	-0.12	0.26	-1.29	0.85
Total	76	76	46	60

[Figure 1] Values for clusters

76명(전체의 28.5%)이 해당되었으며 모호한(ambiguous family)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유형은 아버지, 어머니와의 분화는 높고 성역할에 관한 규칙은 낮으나 다른 가족규칙들은 중간정도인 집단으로 76명(전체의 28.5%)이 해당되었으며 융통적인 가족(flexible family)으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유형은 아버지, 어머니와의 분화가 대체로 높은 반면, 원가족 규칙은 낮은 집단으로 46명(전체의 17.2%)이 해당되었으며 자율적인 가족(liberal family)으로 명명하였다. 네 번째 유형은 아버지, 어머니와의 분화는 낮고 생활규칙을 포함한 모든 원가족 규칙이 강한 집단으로 전체 중 60명(전체의 22.5%)이 해당되었으며 경직된 가족(strict family)으로 명명하였다.

기혼여성의 원가족 경험 유형에 따라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ANOVA와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기혼여성의 원가족 경험 유형에 따라 본인의 연령과 배우자의 연령, 자녀수, 결혼 횟수, 월평균 수입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ANOVA를 실시한 결과<Table 4>, 배우자의 연령만이 기혼여성의 원가족 경험 유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직된 가족의 배우자 연령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인의 연령과 자녀수, 결혼 횟수, 월평균 수입은 유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유형, 가족형태, 본인과 배우자의 직업, 출생순위에 따라 기혼여성의 원가족 경험 유형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결혼유형($\chi^2=1.44$, $df=3$, $p>.05$), 가족형태($\chi^2=5.55$, $df=3$, $p>.05$), 본인($\chi^2=9.01$, $df=9$, $p>.05$)과 배우자의 직업($\chi^2=3.84$, $df=9$, $p>.05$), 출생순위($\chi^2=9.47$, $df=9$, $p>.05$)는 기혼여성의 유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원가족의 가족분화와 가족규칙에 따른 기혼여성의 유형화와 가족건강성

원가족에서 경험한 가족분화 정도와 가족규칙 정도에 따라 구성된 기혼여성들의 군집들이 가족건강성의 하위요인에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ANOVA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에서 볼 수 있듯이, 가족건강성의 하위요인 중 가족유대($F(3, 253)=10.41$, $p<.001$)와 문제해결($F(3, 253)=12.19$, $p<.001$), 가치공유($F(3, 253)=12.00$, $p<.001$)는 융통적인 가족이 가장 높았으며 의사소통은 $F(3, 253)=10.48$, $p<.001$) 자율적인 가족이 가장 높았으나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건강성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경직된 가족 그 다음 순으로 높았으며, 모호한 가족은 가족건강성의 모든 하위요인의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Summary statistics for analyses of cluster differences

Variables	Ambiguous		Flexible		Liberal		Strict		F
	M	SD	M	SD	M	SD	M	SD	
Subject's age	34.08	3.56	34.13	3.77	34.09	4.82	35.14	4.01	1.02
Spouse's age	35.88 ^{ab}	3.73	35.76 ^a	4.24	36.49 ^{ab}	5.05	37.85 ^b	4.83	3.05 [*]
Number of children	1.82	.71	1.87	.62	1.78	.74	2.03	.64	1.66
Years of marriage	7.65	3.19	8.00	3.41	8.39	4.26	9.27	3.94	2.35
Family income	3.53	1.15	3.65	1.41	3.93	1.24	3.66	1.24	.966

(Table 5) Summary statistics for cluster differences on family strength

	Ambiguous		Flexible		Liberal		Strict		F
	M	SD	M	SD	M	SD	M	SD	
Family tie	3.57 ^b	.59	4.03 ^a	.57	3.99 ^a	.48	3.81 ^{ab}	.50	10.41 ^{***}
Communication	3.43 ^b	.59	3.87 ^a	.59	3.93 ^a	.53	3.62 ^b	.59	10.48 ^{***}
Problem solving	3.49 ^b	.62	4.01 ^a	.58	4.00 ^a	.53	3.83 ^a	.55	12.19 ^{***}
Value share	3.28 ^b	.59	3.78 ^a	.58	3.76 ^a	.55	3.55 ^{ab}	.52	12.00 ^{***}

* $p < .05$ ** $p < .01$ *** $p < .001$

V. 논의 및 결론

지금까지 기혼남녀의 원가족에 관한 연구들은 원가족의 경험이 현재 핵가족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는데 집중되어 있었다(Lee, 2002; Forrest, 1991; Wilcoxon & Hovestadt, 1983). 그 결과, 원가족의 자아 및 가족분화나 가족규칙이 핵가족의 부부친밀감과 결혼만족도(Kim & Kim, 2010; Gottman & Notarius, 2000), 부부갈등(Bartle-Haring & Sabatelli, 1998; Kerr & Bowen, 1988), 부모-자녀관계(Jang *et al.*, 2011; Chung *et al.*, 2004)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입증되었으나, 원가족의 경험 정도에 따른 개별적인 집단에 대한 파악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가족에서 기혼여성들이 경험한 가족분화와 가족규칙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고, 그 하위유형에 따라 기혼여성이 자신의 핵가족에 대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가족에서 경험한 기혼여성의 가족분화와 가족규칙을 독립변인으로 군집분석을 한 결과 4개의 하위유형이 도출되었다. 자율적인 가족과 경직된 가족은 서로 상반되는 유형으로 원가족의 경험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유추할 수 있는 집단으로 생각될 수 있다.

Jeon(2005)와 Nam(2000)의 연구에 의하면, 가족분화 수준이 높은 가족은 가족구성원들끼리의 연결성과 분

리성의 균형이 이루어진 가족이다. 이들은 가족 외적인 변화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매우 적응적이고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대처하며, 자신의 정체성과 통합을 유지하려는 안정성을 지니고 있다(Cha & Chun, 2002; Allison & Sabatelli, 1988). 이러한 경향성은 가족규칙에도 적용되어 가족분화가 높은 가족의 규칙들은 대체로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며 상황에 따라 가족규칙이 융통성 있게 적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반면, 가족분화가 낮은 가족은 분리성과 연결성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나치게 경직되거나 지나치게 친밀한 가족관계를 가지게 되는 가족이다. 지나치게 경직된 가족에서는 가족구성원들과의 상호관계가 없는 자율성을, 지나치게 친밀한 가족에서는 구성원들의 자율성과 개별성을 방해하는 정서적 융합과 소속감을 강요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가운데 가족분화가 낮은 가족의 구성원들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융통성이 결여된 가족규칙을 내면화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비해 모호한 가족과 융통적인 가족은 비교적 특이한 집단이다. 모호한 가족은 자율적인 가족과 다소 상반되는 유형으로 아버지, 어머니와의 분화, 생활규칙, 위계규칙, 감정규칙은 다른 집단보다 낮으나 성과 성역할에 관한 규칙은 평균보다 높은 집단이었다. 융통적인 가족은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분화는 네 유형 중 가장 높고 생활규칙, 위계규칙, 감정규칙은 중간정도인 반면, 성과 성역할에 관련된 규칙은 평균보다 낮은 집단이었다.

이 두 유형의 특징은 성과 성역할에 관한 규칙이 가족분화수준이나 생활규칙, 위계규칙, 감정규칙과 같은 다른 가족규칙과 상반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러한 유형의 특성들은 원가족의 경험이 현재 핵가족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형적인 연구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결과이다. 성과 성역할에 관한 규칙은 가족 내에서 남성으로서 혹은 여성으로서 지켜야 하는 행동과 역할 규범에 대한 규칙으로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에서 자주 강조되는 가족규칙이다. 이 두 유형의 가족건강성을 살펴봄으로써 원가족 경험의 어떠한 측면이 현재 핵가족의 가족관계와 상호작용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둘째, 기혼여성이 원가족에서 경험한 가족분화와 가족규칙을 바탕으로 도출된 유형에 따라 현재 핵가족에서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을 살펴본 결과, 융통적인 가족과 자율적인 가족이 가족유대, 의사소통, 문제해결, 그리고 가치 공유 등 모든 가족건강성 하위요소에서 다른 두 유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모호한 가족은 가족건강성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가족의 건강성이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직된 가족은 융통적인 가족과 자율적인 가족보다는 가족건강성이 낮았지만, 모호한 가족보다는 가족건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현재 핵가족에서 부부의 결혼만족도나 친밀감이 높고 갈등이 적으며(Kim, 2007; Jun, 1994; Mee-Gaik, 1991; Stahmann & Hiebert, 1980; Wilcoxon & Hovestadt, 1983), 부모-자녀 관계가 원만하다고 한 선행연구(Chung *et al.*, 2004; Gavazzi, 1993)들의 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한다. 가족분화 수준이 높은 가족에서는 자율성과 친밀감 사이에 최적의 균형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균형 속에서 가족 구성원들은 상호존중과 공감을 바탕으로 한 명료한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Cha & Chun, 2002). 또한 가족의 갈등과 위기에 대해서도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극복하고 문제 해결을 도모하게 된다. 반면, 가족분화가 낮은 가족의 경우에는 연결성과 분리성의 불균형으로 밀착(enneshment) 혹은 과잉분리(disengagement)의 거리규제 패턴을 보이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긴장과 갈등이 유발되어 삼각관계나 융해(fusion), 정서적 단절이 나타나게 되고 가족의 유대와 의사소통은 와해되며,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도 떨어지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어지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원가족에서 경험한 가족규칙을 어떻게 지각하는지가 현재 핵가족의 가족건강성에 미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가족분화 수준에 따라 가족규칙을 강하게 지각하는지 그렇지 않는지에 따라 핵가족의 가족건강성에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가족분화가 높은 가족에서는 균형적인 친밀감과 자율성 속에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가족규칙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가족규칙은 핵가족의 상호작용이나 유대, 의사소통과 문제 해결 방식 등에 영향을 미치나 핵가족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가족분화가 낮아 정서적 단절이나 융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가족구성원들의 행동과 의식을 규제하는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가족규칙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가족규칙에 대한 강조가 핵가족의 가족건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가족분화가 낮은 경우에는 가족규칙을 어느 정도 강하게 지각하는 것이 가족규칙을 강하게 지각하지 않으면서 성과 성역할에 관한 규칙만 강조하는 것보다 핵가족의 가족건강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가족의 가족분화가 낮아 정서적 단절이나 융합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가족 나름의 내면화된 행동과 의식 규범이 있다면 핵가족에서 건강한 가족관계와 상호작용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다른 가족규칙들과는 달리, 성과 성역할에 관한 규칙을 강하게 지각하는 것은 핵가족에서의 건강한 가족 유대와 의사소통, 문제 해결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물학적으로 이분화된 성과 성역할에 관한 규칙은 가족구성원들의 건강한 상호작용을 위해 지양되어야 할 가족규칙이라 생각되어진다.

셋째, 기혼여성이 경험한 원가족의 가족분화와 가족규칙이 핵가족의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유형학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기존의 선형연구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가족의 가족분화와 가족규칙은 세대를 전수하여 개인의 심리적 적응과 가족 및 대인관계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Jeon, 2005; Nam, 2000; Gottman & Notarius, 2000). 기존의 연구에서는 각각 변인이 핵가족의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만을 살펴볼 뿐, 각 변인의 경험 정도에 따른 개별적인 집단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

에서 가족분화와 가족규칙을 변인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족분화와 가족규칙의 경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기혼여성 집단이 확인되었으며 이 유형들에 따라 가족건강성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원가족의 가족분화와 가족규칙 모두 핵가족의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군집분석을 통해 기혼여성의 유형에 따른 핵가족 건강성을 살펴볼 때, 가족분화는 가족규칙보다 핵가족의 건강성을 지각하는데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 상담이나 가족생활교육 등의 현장에서 원가족의 경험을 이해하고 여러 문제를 예방하고 적절한 개입을 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원가족의 가족분화와 가족규칙은 기혼여성의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다. 둘째, 원가족의 경험 정도에 따라 여러 유형들이 도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유형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입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형적인 연구 방법에서는 살펴볼 수 없었던 숨어있는 집단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과 집단에 따른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혀낸 점에 있어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기혼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부부를 대상으로 원가족의 경험을 살펴보고, 그 유형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핵가족의 가족건강성과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가족분화와 가족규칙 이외에 다양한 원가족 경험을 포함하여 분석을 하는 것이 가족의 문제와 어려움을 파악하고 적절한 개입을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기혼여성, 원가족, 가족분화, 가족규칙, 가족건강성, 군집분석

REFERENCES

- Allison, M., & Sabatelli, R. A. (1988). Differentiation and individuation as mediators of identity and intimacy in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3, 1-6.
- Anderson, S. A., & Sabatelli, R. M. (1992). The differentiation in the family system scales: DIFS.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0, 89-101.
- Bae, K. E. & Kim, E. H. (2007). Original Articles : Relationship of Family Strengths, Family Function, Ego-Identity and Depression in Adolescen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13(3), 357-366.
- Bartle-Haring, S., & Sabatelli, R. A. (1998). An intergenerational examination of pattern of individual and family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 903-911.
- Bowen, M. (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Aronson, Inc.
- Burr, W. R., Day, R. D., & Bahr, K. S. (1993). *Family science*.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Cha, J. H. & Chun, Y. J. (2002). Relationship between the Health of the Family of Origin and Intimacy among the Dating Couple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7(1), 39-57.
- Cho, E. K. & Chung, H. J. (2009). Self-differentia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mediated the effect of family-of-origin health on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3(4), 105-132.
- Cho, S. H. & Chung, H. J. (2008). The Effects of Family of Origin Experiences and Self-Differentiation on Marital Relationship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in the Nuclear Family among Married Men and Women.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17(5), 873-889.
- Cho, S. K. & Choi, U. S. (2007). The Relationship of

- Traits of Family of Origin, Marital Conflicts and the Needs for Counselling among Married Couples in Early Stage of Marriage. *Journal of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4(5), 17-35.
- Choi, J. H. (2005). A Study on Marital Satisfaction and Family Strengths in Commuting Couples -Comparison of Husband and Wife in Commuting Couple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3(3), 11-26.
- Choi, J. H. (2006). Family Stress and Family Strengths in Double-income Couple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4(6), 47-58.
- Chung, H. & Elias, M. (1996). Patterns of adolescent involvement in problem behaviors: Relationship to self-efficacy, social competence, and life event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4, 771-784.
- Chung, H. J. (2008). Relationships of Family-of-origin Functioning with Self-differentia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17(6), 1135-1149.
- Chung, M. J. & Lee, J. W. (2003). The effects of family of origin variables on marital conflict.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1(3), 147-164.
- Chung, M. J., Chun, Y. J., & Kim, J. N. (2004). Effects of Parental Differentiation from the Family of Origin and Childrearing Behavior on Child's Behavioral Problem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2(2), 133-150.
- Curran, D. (1983). *Traits of a healthy family : Fifteen traits commonly found in healthy families by those who work with them*. Minneapolis: Winston Press.
- Eo, E. J. (1997). Korean Urban Family Strengths and its Related Variables. *Journal of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5(4), 269-285.
- Eo, E. J., & Yoo, Y. J. (1995).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Scale for Measuring Family Strengths. *Journal of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3(1), 145-156.
- Ford, F. R. (1983). "Rules : The invisible family". *Family Process*, 22, 135-145.
- Forrest, M. (1991). *Family-of-Origin emotional health experiences as predictors of marital satisfa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Arkansas, Dissertation Abstract International-A, 53(8), 2688, 1993.
- Gavazzi, S. M. (1993). The relation between family differentiation levels in families with adolescent and the severity of presenting problems. *Family Relations*, 42, 463-468.
- Gottman, J. M. & Notarius, C. I. (2000). Decade review : Observing marital inter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927-947.
- Ha, S. H. & Chung, H. J. (2008).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the Family-of-origin Functioning and Self-differentiation.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9(2), 789-806.
- Hair, J. F. & Black, W. C. (2000). Cluster analysis. In L. G. Grimm & P. R. Yarnold(eds.), *Reading and understanding more multivariate statistic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arrington, R., Fudge, H., Putter, M., Pickles, A., & Hill, J. (1990). Adult outcomes of children and adolescent depress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7, 465-473.
- Hwang, M. J., Shin, Y. S., & Kim, B. S. (2009). Family of Origin, Self-Differentiation, and the Self-Efficacy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Family Therapy*, 17(2), 195-212.
- Jang, S. W., Chung, H. J., & Lee, J. Y. (2011). The Influence of Family-of-Origin Experiences and Marital Intimacy on Parent-Child Relation.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5(4), 93-111.
- Jeon, Y. J. (2005). *A Study on the family differentiation, quality of dating relationship and marriage-expectation perceived by university students*. Master thesis, Kyunghee University, Korea.
- Jin, D. N. (2008). *The Effect of Family of Origin Experiences on The Family Strength and Marital*

- Conflict among Married Men and Women*. Master thesis, Dong-A University, Korea.
- Jun, C. A. (1994). The effect of couple's differentiation of self and family - of - origin emotional health on marital stability.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 Jun, H. J., Min, S. H., Lee, M. Y., & Choi, H. Y. (2009). Path of the Variables to Migrant Women's Families' Health. *The Korean Association of Family Welfare*, 14(2), 5-27
- Kang, S. J. & Choi, J. H. (2010). A Study on the Marital Satisfaction and Family Strengths of Rural Housewive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5(2), 71-85.
- Keitenr, G. I. & Miller, I. W. (1990). Family functioning and major depression: an overview.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7, 1128-1137.
- Kerr, M. E. & Bowen, M. (1988). *Family evaluation*. New York: Norton.
- Kim, H. J. (2007). *The Effects of Family of Origin Rules, Family of Origin Differentiation, and Gender Equality Awareness On the Marital Satisfaction of Married People*. Unpublished master thesis, Yonsei University, Korea.
- Kim, H. R. & Choi, S. H. (2009). The Effects of Family Strengths and school-related factors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30, 159-182.
- Kim, H. R. & Jung, M. J. (2011). Study in Development and Satisfaction of the Family Volunteer Activity Program: Focused on 『Sharing Love and Joy with Growing Sprouts』 Program and the Participant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9(2), 51-62
- Kim, H. S. (2011). A Study on the Family Strengths of Marriage Immigrant Women and Korean Men Couples.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 Kim, K. E. & Choi, E. H. (2010). The Effect of Family Strength on Adolescents' Adjustment at School -Focused on Mediation Effect of Self-resilienc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19(4), 641-653.
- Kim, N. J. & Kim, Y. H. (2010). Marital Conflict, Satisfaction, & Stability According to Self-Differentiation of Married Men and Women.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5(1), 197-225
- Kim, S. K. (2001). The Effects of Family - of - origin's Emotional Health and Ego - identity on Psychological Well - being of Married Young Adults. Doctoral dissertation, Kyunghee University, Korea.
- Korea Satir Institute (2000). *The Satir model: family therapy and beyond*. Seoul: Kimyoungae Family Therapy Center.
- Larson, J. H. & Wilson, S. M. (1998). Family of origin influence young adult career decision problems: A test of Bowenian theory.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6(1), 39-53.
- Lee, J. M. (2010).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Family Strength, Self-Differentia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Depression of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1(3), 1271-1287.
- Lee, J. W. (2002). *The effects of family of origin variables on marital conflict*. Unpublished master thesis, Yonsei University, Korea.
- Lee, S. J. (2009). The Effects of Family Strengths and Influencing Variables on Perceptions of Parenthood among Th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4(1), 243-266.
- Lin, P. L. (1994). Characteristics of healthy family. *Marriage and the Family in Chinese Societies*, 9-22.
- Mee-Gaik, Ng. (1991). *Family of origin differentia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in healthy like, healthy unlike and unhealthy unlike coupl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exas Woman's University.
- Nam, S. H. & Han, S. Y. (2002). The family differentiation level, quality of family relationship, and intimacy.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8(2), 33-49
- Nam, S. H. & Han, S. Y. (2001). The study on the

- mediating effect of anxiety and happiness in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process of the level of family differentiation in three - generation familie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4), 625-640
- Nam, S. H. (2000). The study on the dynamics of emotional system of family.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Korea.
- O, J. O. (1999). The relationship between health of family and self-esteem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4(2), 153-172
- Olson, D. H. & Defrain, J. (2003). *Marriage and the family : Intimacy, Diversity, and Strenths (3rd ed.)*. Mountain View, CA : Mayfield.
- Otto, H. (1963). Criteria for assessing family strengths. *Family Process*, 2, 329-338.
- Park, J. Y. (2008). The Study of Culture Program Evaluation in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s. *Journal of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6(3), 25-36
- Park, M. J. (2006). *The effects of differentiation, family rules of the family of origin and marital communication on couples' marital intimacy*. Unpublished master thesis, Yonsei University, Korea.
- Park, S. S.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Concept and Family Strengths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4(1), 37-55
- Pratt, L. V. (1976). *Family structure and effective health behavior: The energized family*. Boston: Houghton Mifflin.
- Satir, V. (1988). *The new people making*. Mountain View, CA : Science and Behavior Books.
- Seo, H. J. & Kim, J. O. (2009). Self-esteem and Happiness caused by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of Family Strength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4(3), 141-178.
- Skowron, E. A. & Friedlander, M. I. (1998). The differentiation of self Inventory: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235-246.
- Song, H. R. (2010). Development of Educational Program for Healthy Families Center: Focused on the Working-Married Women. *Journal of the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4(1), 1-17.
- Stahmann, R. F. & Hiebert, W. J. (1980). *Premarital Counseling*. Lexington Books.
- Stinnett, N. & DeFrain, J. (1989). The healthy family : Is it possible? In M. Fine(Ed.), *The second handbook on parent education*(2nd Ed.). New York : Academic Press.
- Stinnett, N. (1983). Strong families : A portrait. In D. Mace(Ed.), *Prevention in family service : Approaches to family Wellness*. Beverly Hills, CA: Sage.
- Su, J. S. & Kim, H. Y. (2007). A study of the Awareness of Healthy Families and Practical Plans to Promote Health. *Journal of the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1(3), 81-105
- Wilcoxon, S. A. & Hovestadt, A. J. (1983). Perceived health and similarity of family of origin experiences as predictors of dyadic adjustment for married couple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9(4), 431-434.
- Workman, S. H. & Gage, J. A. (1997). Family-School partnerships : A family strength approach. *Young Children*, 52(4), 10-14.
- Yang, S. M. (2004). A Study on the Relative Happiness through Gender in Rural Couples and the Effect of Family Healthines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9(2), 153-172
- Yang, S. M., Yoo, Y. J. & Chung, H. S. (2001). Classification and Characteristics of Healthy Family Groups of Rural Familie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9(4), 31-48.
- Yoo, E. H. & Park, S. Y. (1989). The Attachment Between Mother and Married Son and Mother's Marital Relationship to Son's Marital Satisfaction : A Path Model. *Journal of the Korean Home*

- Economics Association*, 27(2), 149-162.
- Yoo, G. S. (2004). A Survey on the Elements of Strong Familie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9(2), 25-42.
- Yoo, Y. J. (2004).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Family Strengths Scale for Strengthening the Family. *Journal of Family Relations*, 9(2), 119-151.
- Zimmerman, M. A. & Maton, K. I. (1992). Life-style and substance use among male African-American urban adolescents: A cluster analytic approach.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0, 121-138.
- 접 수 일 : 2011. 09. 27.
수정완료일 : 2011. 12. 19.
게재확정일 : 2011. 12. 29.